



적조 피해 예방-황토 살포 /전남도

전남도, 적조주의보 확대 발령

전남도는 특량만에 적조주의보,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는 예비특보가 추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가막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0일 오후 2시 기준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다.

전남도는 대조기 진입과 함께 적조피가 주변 양식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적조 조류인 코클로디니움 성장에 적합한 22~27℃ 수온이 유지됨에 따라 방제 선박 추가 투입과 황토 살포 범위 확대, 예찰 횡수 증대 등 적조 확산 차단과 양식장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천350톤을 살포했으며, 황토 운반선·포크레인 등 장비

51대와 선박 164척을 투입해 수류 방제 효과를 높였다. 또 현장 대응반을 상시 배치해 신속한 방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류를 추진 중이다. 주의보 발령 해역에는 참돔, 감성돔 등 양식어류 6천407만 마리가 양식 중이며, 이 중 423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추가 접수분도 신속히 방류할 계획이다. 전장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제와 예찰을 더욱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 발생 해역 어업인은 먹이 공급 중단, 야간 산소발생기 가동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덕기자

“아이 먼저”...광주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초등 10개교 주변서 합동 홍보 민·관·경 250여명 참여

광주시는 10일 오전 등교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10개교 주변에서 5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에 따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 이행과 배려 운전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공무원,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광주경찰청,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전우회, 자율방재단,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시민실천단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학교 앞 횡단보도와 주요 통학로에서 “횡단보도 일단 정지,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교통질서 준수를 홍보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신고하고 개선하는



광주시는 10일 오전 등교시간에 맞춰 초등학교 10개교 주변에서 5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에 따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광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오는 26일까지 집중 점검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대상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 광고물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작은 부주의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아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보행할 때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그동안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이번 활동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창덕기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곡성군에서교통안전 MOU 체결

8월 25일, 이병희 전남교통연수원 무렵약(MOU)을 체결 후, 양 기관 관장(좌측 3번째)이 곡성군청 회의실에서 조상래 군수(우측 3번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홍석기자

광주시, 추석명절 대비 도로환경 집중 정비

10월2일까지 14개 노선 91km 추석연휴 24시간 비상근무 도로포장·차선도색·안전시설 사전 정비로 안전 귀성길 지원

광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10월2일까지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주변 도로 14개 노선 91.74km에 대해 ‘안전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면요철, 차선, 표지판, 잠목 등을 사전에 정비한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도로 파손이나 낙하물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만 총 87억원을 투입해 △하남진곡산단로 등 16개

노선 24만㎡ 도로포장△하남대로 등 20곳 43.9km 차선도색 △도로표지와 도로안전 시설물 155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7~8월 집중호우까지 △포트를 2만4834건 △싱크홀 9건 △도로비탈면 유실 14건 등 긴급복구를 완료해 시민 불편과 2차 안전사고를 최소화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추석



도로포장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홍석기자

강진군안전교육종합체험관



체험관 소개

우리의 생활 속 언제 갑자기 일어날 지 모르는 안전사고, 미리 배우고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진군안전교육종합체험관은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체험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행동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Safety!



체험관 안내

■ 도로명 주소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36

■ 전화번호 : 061-434-6613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itsec.kr/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예약

■ 교육 시간 : 평일 10시, 13시, 15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료 : 무료

